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온 아이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 해소

---

보다 나은 회복을 위한 불평등 해소

대한민국 서울에 자리한 여명학교는 지난 16년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때로 보호자 없이 떠나 온 아이들 수 천명에게 쉼터를 되어 왔습니다.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으로 디지털 격차가 여실히 드러났고, 여명학교는 여러 기부자의 성원으로 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온 인수와 연비를 만나볼까요.

인수는 수 차례 강을 건너고 산을 넘어, 여러 국가를 거치는 여정을 지나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도착했습니다. 연비는 14살에 혼자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건너 와서, 몇 해 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한 엄마와 재회하길 바라며 중국에서 일 년간 숨어 지냈습니다.

여명학교는 2004년 대한민국 서울에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인수와 연비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떠나 온 아이들 수천 명에게 쉼터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누리고자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으로 온 아이도, 중국으로 인신매매 되어 강제로 결혼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여성 이탈자 자녀인 아이도 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이탈해서 대한민국에 오는 아이들 대다수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끔찍한 상처를 가진 채 도착합니다. 아이들에게 학교는 생명줄이자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은 이러한 희망마저 위협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지난 3월, 여명학교는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학생이 하루 세 끼를 해결할 수 있었던

교내 식당뿐 아니라 기숙사도 문을 닫았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탈출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는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학교도 가지 못한 채 9평짜리 방에 홀로 머무릅니다. 게다가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 수 있는 노트북이나 태블릿 PC가 있는 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부를 더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노트북이 없어서 온라인 수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라고 연비는 말합니다.

여명학교 조명숙 교감은 “이번 대유행은 우리 사회 속 빈부격차를 드러냅니다. 집에서 수업을 해야하니까 디지털 기기가 필수적이고, 이것이 있어야만 수업이 가능한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디지털 기기가 없어서 수업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조명숙 교감은 고립된 채 공부조차 할 수 없는 학생들을 더 이상 그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으로 상황을 설명하며 개인 후원자와 교회에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습니다. 사흘만에 후원자들로부터 노트북이 배달됐고, 여명학교 학생 모두가 개인 노트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노트북 받고 너무 좋아하고 방방 뛰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것 처음 봤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귀하게 대접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말하더라고요”라고 조명숙 교감은 말합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배울 권리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외부 요인으로 이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될 때, 취약한 계층의 아이들은 교육이나 꿈꿔 온 미래에 진입 자체가 어렵습니다”라고 조명숙 교감은 말합니다.



사진 1: 여명학교 학생이 선물받은 노트북으로 온라인 수업을 듣는 모습  
대한민국 서울, 2020년 8월 ©여명학교

아이들은 기부 덕분에 신나는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여명학교는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반겨주던 학교 건물 임대 계약이 1년 정도 남았는데, 아직 이사갈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운영할만한 곳을 찾긴 했지만, 해당 건물이 위치한 지역 주민이 학교 설립에 거세게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때문에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아이들에게는 학교가 집보다 안전합니다. 전세계적으로 배가 고파도 먹지 못하고, 아파도 집에만 있을 뿐 병원에 가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라고 조명숙 교감은 말하며 “이런 아이들에게 학교는 공부하고 치유 받고 보호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학생들을 위해 여명학교를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학생 이름은 가명으로 사용했습니다.



2020년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하여 ‘인권을 위한 목소리를 내어 보다 나은 회복을 위해 행동하자’는 주제 하에 연재되는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위기로부터 회복하려면 반드시 불평등의 대유행을 막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권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따른 새로운 사회 계약이 필요한 때입니다.

2020년 11월 24일

2020 세계 인권의 날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교육권 특별보고관](#)